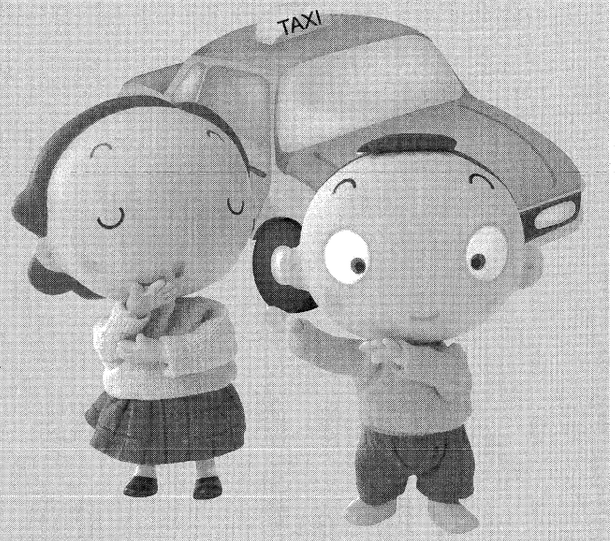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타려고 한다면?



시각장애인이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면, 먼저 도와주려는 의사를 말하고 행선지를 물으시면 되요.

안전한 곳에서 기다릴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빈 택시가 오면 탑승을 도와주면 되지요. 차에 탈 때는 시각장애인의 한 손은 차의 문에, 다른 한 손은 차의 지붕에 얹어주면 혼자 탈 수 있답니다.

후원안내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2조, 법인세법 제18조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문의전화: 02-950-0109)

계좌번호 우리은행 : 1006-601-227253 (예금주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우리은행 : 1005-201-776110 (예금주 : 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손으로 보는 세상 | 제18권 1호 통권 138호

2012년 1월 15일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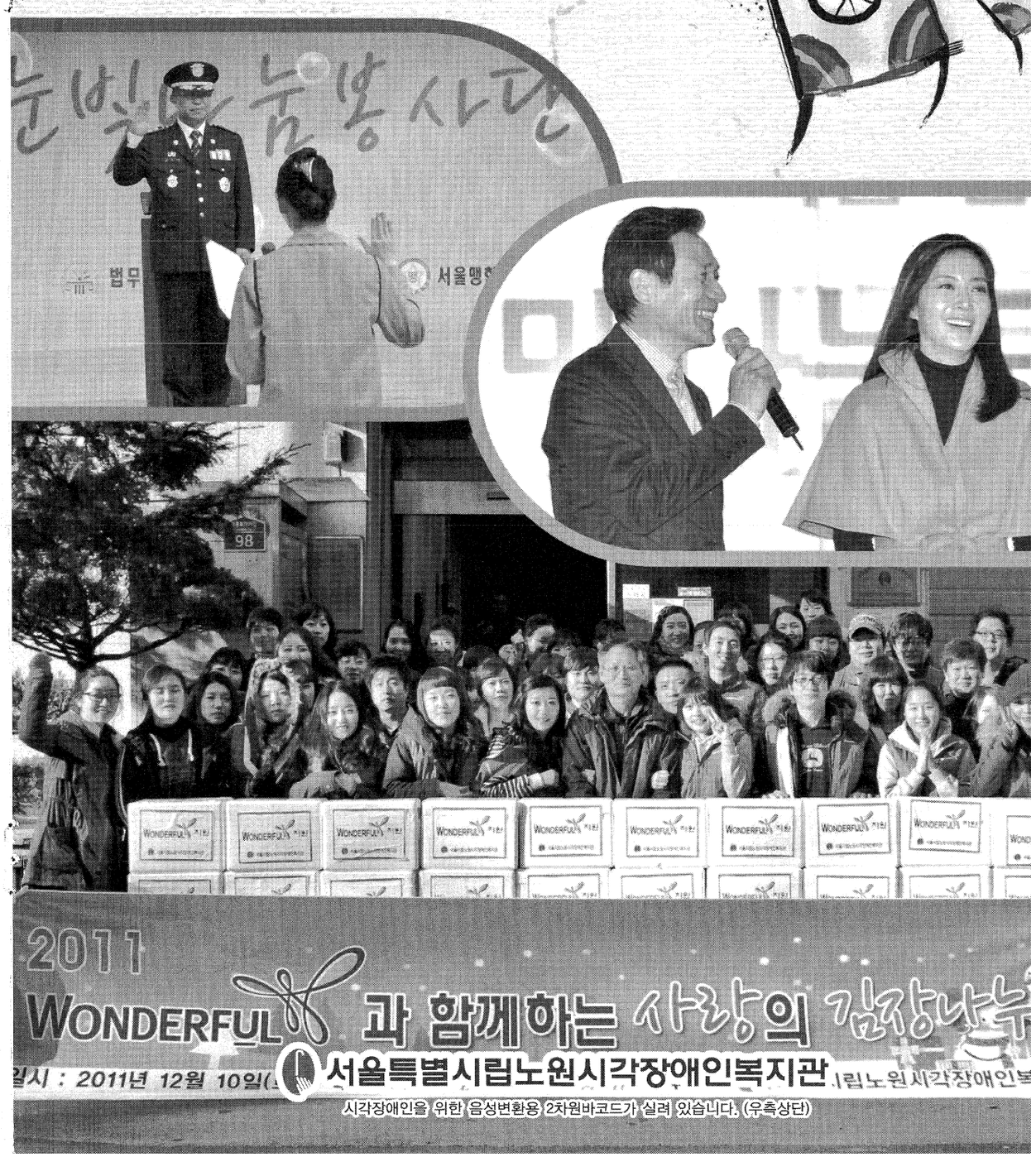
발행처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전화 : 02-950-0109 팩스 : 02-934-8069
Homepage : www.nowonblind.or.kr
E-mail : kbuhongbo@hanmail.net
우) 139-831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1

제작 : 쥬비컴 디자인전문회사 (T. 02-2091-1255)

〈표지 사진설명〉 – 아래쪽부터
-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
- 삼성증권 '희망+알파나눔 캠페인' 연말행사에 참석한 배우 송윤아, 안성기 씨
- '눈빛나눔봉사단' 발대식 중 수형자 대표의 선서장면

손으로 보는 세상

2012. JANUARY | Vol.138호



2012 임진년 신년인사

2011년 신묘년이 지나고 2012 임진년 새 해가 떠올랐습니다. 저희 '손으로 보는 세상'을 구독해주시는 독자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올 한해 행운이 깃들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2012년을 맞이하면서 올 한해 시각장애인계에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의 큰 그림을 그려봅니다. 우선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 시각장애인들의 권익을 최대한 획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일은 시각장애인이 국회에 입성하여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해 나아가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실현되지 못한다고 해도 차선으로 정당의 선거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의 입지를 넓혀 나가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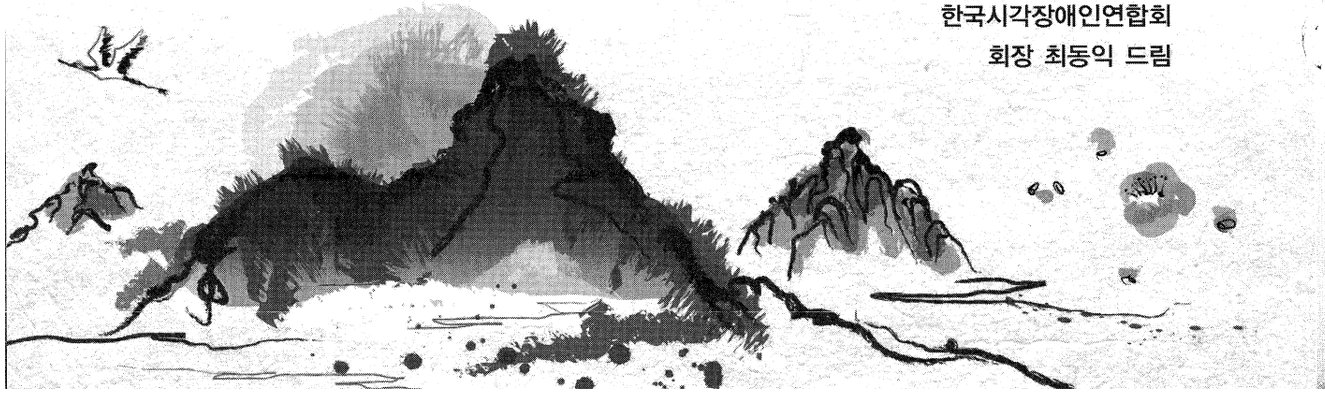
다음으로, 시각장애인 스포츠의 활성화입니다. 2011년 10억 원에 이르렀던 우리 시각스포츠 예산을 정부는 또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의 노력으로 5억 원의 시각스포츠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스포츠 예산이 보다 확고히 다져질 수 있도록 정기적 예산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셋째로, 화면해설방송센터의 설립입니다. 방송법의 개정으로 인해 화면해설방송물의 제작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스튜디오로는 한계가 있어 서울시 내에 건물을 매입하여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각장애인 직업제도의 활성화입니다. 안마업에 대해서는 대한안마사협회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지만 그 외의 직업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많은 정부 예산을 확보하여 시각장애인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소외되었던 장애인표준사업장, 음향평가사, 콜센터 등 새로운 형태의 직업을 창출하고, 기존의 직업을 지니고 있는 시각장애인 직업인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공무원에 취업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지원이나 소프트웨어 지원 등을 확실히 매듭짓겠습니다.

지난 한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 임진년은 독자여러분들의 웃음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최동익 드림



시각장애어린이들과 삼성증권 임직원이 함께 펼친 뮤지컬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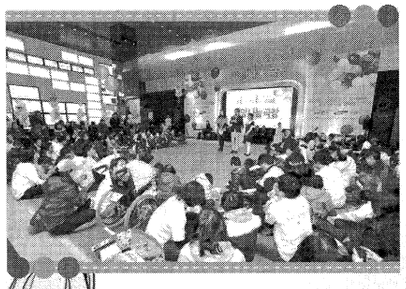
12월 8일 삼성 서초사옥 '딜라이트홀'에서는 시각장애어린이와 함께하는 '희망+알파나눔 캠페인' 연말행사가 열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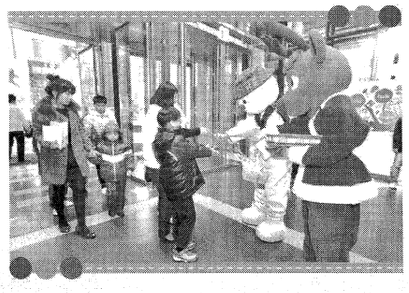
시각장애어린이, 삼성증권 임직원들은 연극과 뮤지컬을 함께 공연했는데요, 삼성증권 홍보모델인 안성기 · 송윤아 씨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날 8천만 원의 후원금을 비롯해 점자도서 2000부, 오디오북 3000부 등을 저희 연합회와 관련 단체들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 시각장애 어린이가 참여한 공연 장면

▲ 내레이션을 하고 있는 배우 송윤아, 안성기 씨





최동익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장(사진 왼쪽)이 삼성증권 안종업 전무로 부터 후원금을 전달 받고 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수형자들, 시각장애인에게 따뜻한 눈빛을 나누다

구치소와 교도소의 수형자들이 시각장애 학생들을 위해 점자책을 만드는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서울남부구치소와 교도소의 남·여 수형자 30명으로 구성된 '눈빛나눔봉사단'이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들은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들이 요청한 도서를 점자책으로 점역*하거나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이 가능한 파일로 제작할 계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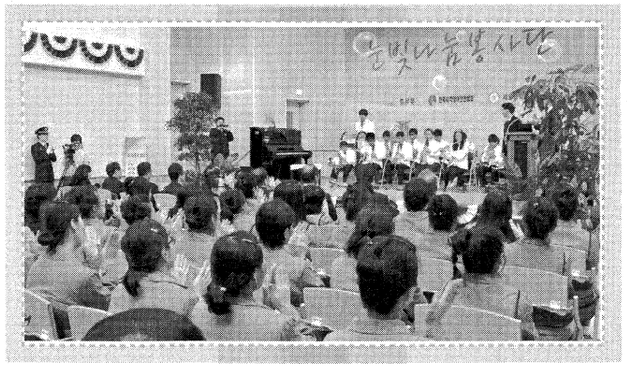
*점역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일반문서를 점자로 번역하는 일

▲ 서울맹학교 학생들의 축하공연

▲ '점역자료 제공 등을 위한 업무협약식'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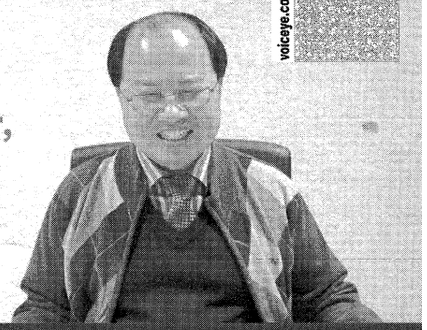
▲ 사회를 맡은 시각장애인 방송인 심준구 씨

▼ 수형자 대표가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책을 전달하고 있다



희망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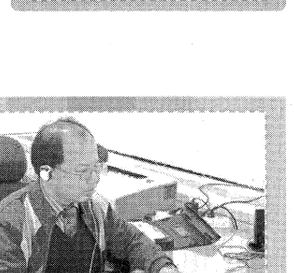
장애인을 위한 행복도서관을 꿈꾸는,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김영일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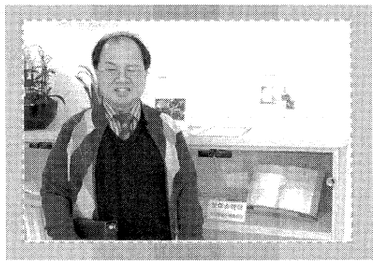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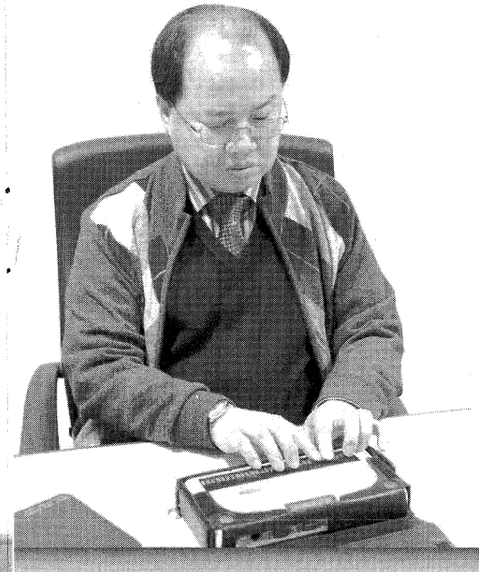
올해 9월 조선대학교 특수교육과 김영일 교수는 **시각장애인 최초로 중앙부처 기관 개방형 과장직인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소장에 임용**됐습니다.

10여 년간 몸담았던 학교를 잠시 떠나, 김영일 교수가 아닌 김영일 소장으로서의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이지요.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도서관에 대체자료(점자책, 오디오북 등)를 요청하면 받아보기까지 많은 시일이 걸리는데요, 그 기간을 10일로 줄이는 것이 김 소장의 임기 내 목표라고 합니다.

그가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길, 그로 인해 시각장애인들이 책과 함께 그 속에 담긴 행복도 더욱 빠르게 받아 볼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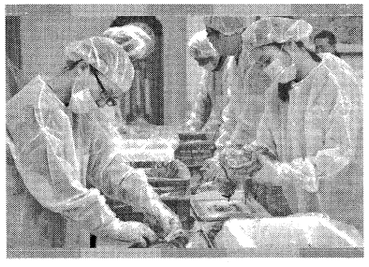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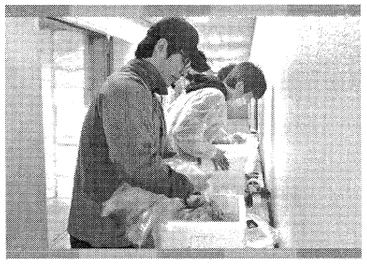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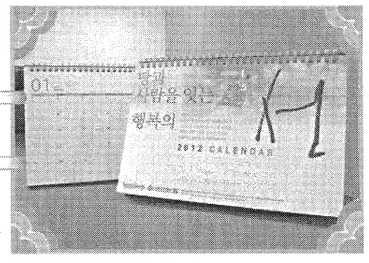


NEWS ALBUM

1 12월 10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각장애인가정을 위한 **"사랑의 김장나눔행사"**가 열렸습니다. 이날 담근 700여포기의 김치는시각장애인가정 200곳에 나눠질 예정입니다.

2 연말을 맞아 곳곳에서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지적공사는 탁상용 점자달력 2,000부**를, **서울메트로 제1기술사업소는 겨울내의 30벌**을 보내주셨습니다.



▲ 대한지적공사 점자달력 전달

▲ 서울메트로 겨울내의 전달

3 시각장애인 이동의 자유와 인터넷 상에서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논의하기 위한 **시각장애인 편의증진을 위한 토론회**가 12월 7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4 **2011 시각장애인 스키캠프**가 12월 19일부터 2박 3일간 하이원리조트에서 진행됐습니다. 캠프에 참여한 20명의 시각장애인들은 경주대학교 체육전공 학생들과 1대1 가이드로 연결되어 안전하게 스키를 즐겼습니다.